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 추진

도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이달부터... 5일 전까지 요청해야 학생 1000명 이상 참여·전시장 부스 10개 이상 설치 행사 등이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대규모 행사에서 인명 피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2023년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행사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학생 1,000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전시장 부스 10개 이상 설치하는 행사로 이들은 사전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다. 이외에 교육감이나 주최 기관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도 사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일상회복으로 각종 행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은 행사 5일 전까지 학생안전관리지원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안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행사개요 및 주요내용, 참여 예정인원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치

에 관한 사항 △행사장의 위험요소(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비상시에 대응요령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소방·가스·무대시설 구조물 등 행사장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대응요령 및 연락처 등 준비상황,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대한 준비상황, 소방서·경찰서·시군청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이다.

학생안전관리팀에서는 행사 개시 1

일 전까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진행하되, 요청시 열화상카메라·자동심장충격기·비접촉식 온도계 등도 대여해준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행사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이후 2015년 47건·2017년 28건·2019년 22건·2022년 11건을 점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영어트랙을 개설해 학부 및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호텔경영학과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세계 호텔산업은 활황 중' ... 영어트랙 개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올해 9월 학기에... 학부·석사과정 외국인 학생 모집

세계적인 여행 및 호텔산업 활황으로 전문 호텔리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영어트랙을 개설해 학부 및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을 모집한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100% 영어수업으로 진행되는 2023년 9월 학기 영어트랙을 개설해 전 세계 영어권 학생 또는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를 갖춘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외의 외국인 학생 영어트랙 모집 형태는 신입생과 교환학생 편입생 석사과정이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이 영어트랙에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영어 성적은 TOEFL IBT 71, IELTS 5.5 이상이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영어트랙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을 위해 수준 높은 호텔 실무 지식 교육은 물론 문화적 다양성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한국 학생들과 연계 활동 강화로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텔경영학과는 이와 함께 영어트랙 외국인 학생들에게 최소 1학기 국내외 인턴십을 제공하고, 국내외 호텔업계에서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은 석사과정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외의 영어트랙 개설 및 모집은 메리어트 그룹과 아코르 그룹 등 세계적인 대형 체인 호텔그룹의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전문 호텔리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뤄

지게 되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심영국 교수는 "호텔 분야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발맞추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전 세계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수준 높은 호텔리어를 양성하고자 영어트랙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영어트랙 운영을 위해 현재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섭외 및 영어트랙 개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호텔경영학과 영어트랙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jj.ac.kr/global/english/hospitality/about.jsp)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지원 관련 문의는 전주대 국제교류원(063-220-2122)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이달부터 '천원의 아침밥' 진행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5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했다.

호원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돼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호원대학교가 1,500원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전라북도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을 부담해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원대의 사업 선정으로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한 5월부터 7개월 동안 재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호원대학교 다산관 1층 식당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일 선착순 50명에게 4,5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인당 1,000원에 제공하게 된다.

강희성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진행되는 첫날인 5월 2일 다산관 식당을 방문하여 재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게 된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따뜻한 아침 한 끼로 학생들이 든든하게 학업을 시작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채용연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설명회

전주기전대학은 2일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의 채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점검을 마쳤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2021년 하반기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운영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 학생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기전대학 IINC3.0 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실습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였으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및 실습기업의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도모했다.

실제, 대학은 2022년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산학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덕현 산학협력단장은 "지난해 산업체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 대학과 기업이 만족하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예비인으로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글로벌사업 추진 피한다... 전주대, 기업인 초청 세미나

동문·지역기업인 20여명 초청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29일 동문 및 지역 기업인 20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글로벌사업 추진 및 학생 취업을 증가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EO를 위한 시(詩)이오 라는 제목으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경영대학장 이경재 교수(금융보험학과)의 재미있는 인문학 특강이 있었다.

이경재 학장은 특강에서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동문 및 지역 기업의 협업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세상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할 것이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시(詩)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동문 기업인들은 창의성이 중시되는 기업경영에서 시를 가까이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경영대학 부동산국



전주대학교는 지난달 29일 동문 및 지역 기업인 20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글로벌사업 추진 및 학생 취업을 증가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정보화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유)고향년년 이재용 회장 등 동문과 기업인들은 앞으로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며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당부

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대는 취업을 증가 및 글로벌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과 중자산업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자산업분야 인력양성 '맞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농업기술진흥원 K-SEED 서포터즈 출범식도 함께 진행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학교장 김용재)는 지난달 2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과 중자산업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14년부터 이어진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적극적인 기술·교육 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과 더불어 '2023 K-SEED 서포터즈' 출범식이 진행돼 18명의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중자산업과는 2019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 중자진흥센터와 함께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K-SEED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중자산업분야 현장교육 프로그램과 민간 육종 단지 내 중자 기업과의 취업 연계 지원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K-SEED 서포터즈'는 중자기업 및 유관기관 견학 및 직무체험, 중자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하여 학생들의 중자산업분야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김용재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자산업과 학생들의 실무교육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산업 분야까지도 함께 하여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중자산업분야에 세계적인 기업들 중 개인 가족사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경우가 많다"며 "일찍이 중자산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현장실습 등 교육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김제=곽노태기자

청소년단체 활동 적극 지원

도교육청, 활동지원 사업 공모... 9~12일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2023.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소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인성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높이고, 위축됐던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여야 한다.

또 △활동 범위가 전북 전역인 단체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5월 9~12일까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캠퍼리·다문화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의 효과성 및 적절성, 청소년단체의 규모(참여 인원, 참여 학교수 등) 및 활동 실적, 자부담 능력,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이 고려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4일 상반기 중등영어교사 워크숍

챗GPT·AI 활용 수업사례 나눔, 기초학력 정책 이해 도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오후 2시 전주기전대학교 행복가속사 컨벤션홀에서 2023년 상반기 중등 영어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학생 맞춤형 중등영어 기초학력 향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한 도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전문직원, 도교육청 업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에 대한 사전 설문 결과 공유를 시작으로 챗GPT 및 인공지능(AI) 활용 학생 맞춤형 영어 수업사례 나눔 및 실습,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와 두드림학교 및 학력지원센터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수업 사례 나눔과 기초학력 정책 이해를 통해 중등 영어교사의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